

■ 이주 속의 역사, 역사 속의 이주 ■

청동기 시대 그리스로의 이주민과 ‘헬레네스’ 개념

오 흥 식

I. 문제의 제기

고전기 그리스인에게 헬레네스라는 민족 정체성이 생겨나게 한 계기가 페르시아 전쟁(480-479 BC)이라는 데에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김봉철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인들의 동족의식이 어느 정도 강했는지를 그 당시의 1차 사료들을 근거로 삼아 실제 사건들에서 알아보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스인과 이민족 간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사례를 수 합하여 당시 그리스인과 이민족 간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척되었는가를 살폈다. 이는 동시에 그리스인의 동족의식이 그들의 실제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례 28개 중에서 24개가 동족의식을 중시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그리스인의 민족의식이 우선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을 4개 들었지만, 그것들 역시 민족의식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시켜 줄만한 본보기는 아니었다... 적어도 고전기 그리스인들은 많은 아테네인 저술이 묘사한 그리스인/이민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고, 각국의 입장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했음이 확인되었다.¹⁾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도 실제 사건들을 사례로 분석한 결과 그리스인들

1) 김봉철, 「고전기 그리스인의 민족정체성의 실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인의 이민족에 대한 행동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55(1997), 24.

에게 헬레네스Hellenes라는 민족의식은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다. 이제 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한다.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에서도 혈통에 근거한 동족의식이 그들에게 왜 중시되지 않았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고대그리스인들에게 그들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동일한 혈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120년, 소위 ‘도리스족의 침입’ 이전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는 수 많은 바르바로이가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었고, 도리스족의 침입(그리스인들은 이 사건을 그리스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 사건으로 본다) 이후에도 그 바르바로이의 영향이,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 후손들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었다. 소위 헬렌의 후손이라는 혈족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도리스족과 이오니아족 사이에서도 청동기 시대에 동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II. 헤라클레스

스트라본은 청동기 시대(~1120 BC) 그리스에 수많은 이민족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고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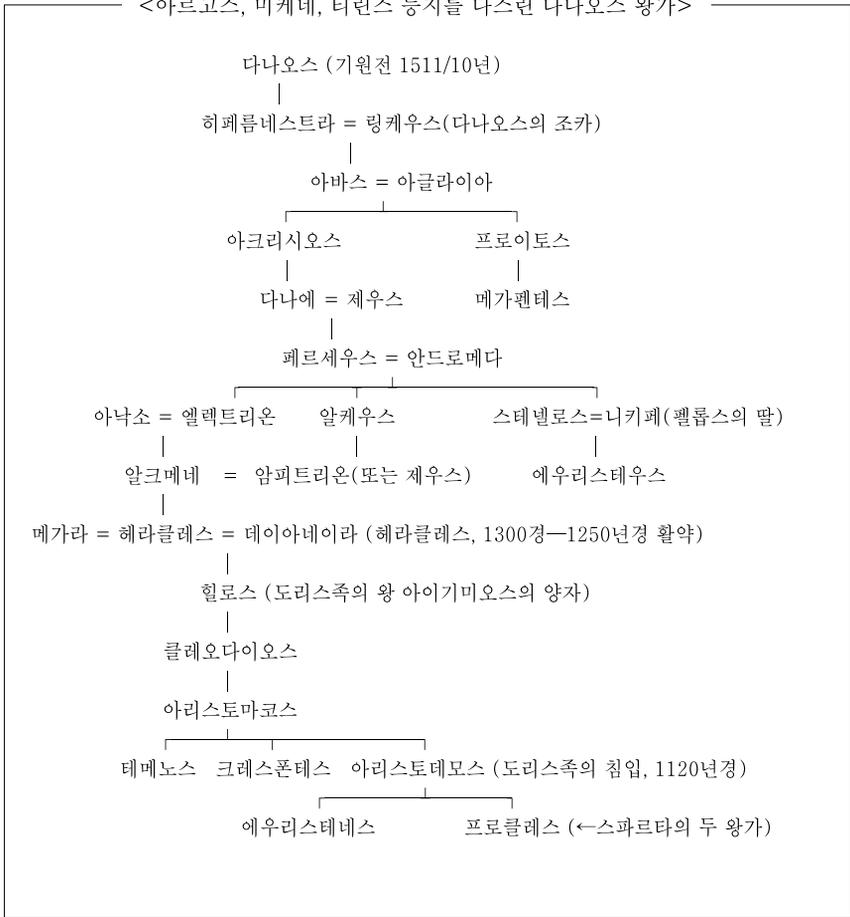
밀레토스의 헤카타이오스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의 시대 이전에(πρὸ τῶν Ἑλλήνων) 펠로폰네소스에는 바르바로이가 살았다. 만약 전승들로부터 추론해본다면, 옛날에는 그리스 전체가 이민족들의 정착지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펠롭스는 프리기아로부터 사람을 이끌고 펠로폰네소스로 왔고, 다나오스는 이집트로부터 왔다. 한편 드리오페스인, 카우코네스인, 펠라스고이인, 렐레게스인,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이스트모스 내부(주: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지역들을 나누어 가졌다. 이스트모스 외부도 마찬가지다.²⁾

‘그리스인들의 시대 이전에(πρὸ τῶν Ἑλλήνων)’는 도리스족의 침입 이전인 청동기 시대를 말하는데, 그 시대를 그렇게 부른 이유는 주도세력이 그리스인들이 아니라 바르바로이였기 때문이다. 스트라본은 ‘도리스족의 침입’이 그리스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2) 스트라본 vii.7.1

청동기 시대 그리스로의 이주민과 ‘헬레네스’ 개념

<아르고스, 미케네, 티린스 등지를 다스린 다나오스 왕가>



스트라본이 언급한 다나오스를 사례로 들어보자. 고대 그리스인들 기록에 따르면, 다나오스는 이집트인들의 공격을 받아 이집트에서 축출되어 그리스 땅 아르고스에 도래하여 자신의 왕조를 만든다. 기원전 3세기의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그 때가 기원전 1511/10년이다. 다나오스 왕조는 미케네, 티린스 등지로 세력을 뻗는다. 다나오스의 8대손 헤라클레스가 미케네의 왕이 되어야 했으나 왕위는 스테넬로스—다나오스의 5대손 페르세우스의 아들(위의 족보를 보시오)—의 아들 에우리스테우스

에게 넘어갔다가 에우리스테우스의 외삼촌 아트레우스(펠롭스의 아들이자 아가멤논의 아버지다)에게 넘어가면서 아르고스 왕국은 다른 혈통의 가문에게 넘어간다. 이를 투키디데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원정을 떠나면서 외삼촌 아트레우스에게 미케네의 통치를 위임하였다. 아트레우스는 크리시포스를 죽인 죄로 아버지(주: 펠롭스)에 의해 추방되어 이곳에 와 있었다. 에우리스테우스가 아티카에서 헤라클레스 가문에 의해 살해되어 귀국하지 못하자, 헤라클레스 가문을 두려워한 미케네인들은 아트레우스를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였고 아트레우스 또한 대다수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있었다. 아트레우스는 그들의 간청으로 미케네와, 에우리스테우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펠롭스 가문이 페르세우스 가문보다 더 커졌다.³⁾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대에는 그 유명한 트로이 원정이 있었다.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는 아르고스를 정복하였다. 이리하여 다니오스 혈통은 펠롭스 혈통에게 거의 모든 지역을 빼앗긴다. 그러나 아가멤논의 손자 티사메노스가 미케네의 왕이었을 때 3대 동안 쫓겨나 있었던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마침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정복하고 왕권을 회복한다. 소위 ‘도리스족의 침입’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기원전 1120년경에 일어났으며, 고대그리스 저자들은 이 사건을 ‘헤라클레스 후손들의 귀국’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도리스족의 침입 때 도리스족의 지도자는 혈통으로 보아 이집트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페르세우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야기하고 그 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암피트리온이라는 이름을 지닌 인간이지만, 어느 누구도 페르세우스의 아버지를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인의 기록이 페르세우스에 이르기까지는 올바르다고 필자가 말했을 때, 필자는 올바른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weit대로 거슬러 올라가, 아크리시오스 왕의 딸 다니에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세우스 왕의 조상들을 따져본다면, 도리스인의 지도자들은 순수한 이집트인들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⁴⁾

3) 투키디데스, i.9.2

4) 헤로도토스, vi.53.2

이 인용문의 전반부에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가적인 측면이 잘 나타나 있다. 헤로도토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제우스가 아니라 바로 인간 암피트리온이라고 보고 있다. 헤로도토스의 동시대 그리스인들은 페르세우스의 아버지를 제우스로 보고 있지만, 그는 역사가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페르세우스의 어머니는 인간의 여자 다나에로서 아크리시오스 왕의 딸인데, 다나에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 본다면 도리스족의 지도자들은 순수한 이집트인 혈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페르세우스의 원 조상으로 헤로도토스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다나오스이다. 헤로도토스 스스로가 “다나오스와 크수토스가 펠로폰네소스에 오기 전에는”(vii.94.1)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리스를 여행한 다나오스와 링케우스가 이집트의 캄미시시市 출신이기 때문인데, 그들은 이 두 사람으로부터 페르세우스에 이르는 족보를 추적해 내려갔다”(헤로도토스, ii.91.5)라는 이집트인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몇 구절 뒤에서 헤로도토스(vi.55.1)는 위 인용문에서 보여준 신중한 태도를 던져버리고 도리스인의 지도자들이 이집트인이었음을 기정사실화 한다. “이 정도로 충분하겠다. 이집트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왜 그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도리스인들로부터 왕권을 얻었는지는 다른 자들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필자는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다른 자들이 다루지 않은 것들을 언급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스트라본은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고 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도리스인의 왕은 아이기미오스였는데, 그는 왕좌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하는 것처럼, 그는 헤라클레스에 의해 다시 복위되었다. 따라서 아이기미오스는 헤라클레스가 오이타에서 죽은 후, 헤라클레스에게 그 호의를 보답하였다. 그가 헤라클레스의 장남 힐로스를 입양한 것이다. 힐로스와 힐로스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갔다. 바로 이곳으로부터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은 펠로폰네소스로의 귀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⁵⁾

도리스인의 왕 아이기미오스가 헤라클레스의 큰 도움을 받고, 헤라클레

5) 스트라본, ix.4.10

스가 죽은 후 그의 장남 힐로스를 입양하고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은혜를 갚았다는 내용이다. 아폴로도로스(ii.8.4)에 따르면, 도리스족의 침입 때 아리스토테모스(헤라클레스의 고손자)의 아들인 프로클레스와 에우리스테네스가 라케다이몬(스파르타)을 차지하였다. 이후 두 가문에서 각각 한 명의 왕을 내놓아 두 명의 왕이 공동통치하는 관례가 기원전 2세기 스파르타가 망할 때까지 예외 없이 지켜졌다. 스파르타의 왕은 헤라클레스의 혈통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III. 도리스족과 이오니아족

1. 도리스족과 헬레네스

그렇다면 미케네 문명 시기에 헬레네스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헬레네스Hellenes란 그리스인들의 시조 헬렌Hellen의 복수형으로, 헬렌의 후손들이라는 뜻이다. 투키디데스는 헬레네스의 기원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헬라스라는 이름조차 없었던 같다. 테우칼리온의 아들 헬렌 이전에 그러한 명칭은 없었던 것 같다. 몇몇 부족의 이름이 지명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부족명 ‘펠라스기콘’이 지명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런데 프티오티스에서 헬렌과 그의 자손이 번영하고 있다가 원조요청에 응하여 다른 도시들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들은 점차 ‘헬레네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물론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호머에 있다. 트로이 전쟁이 있는 지 훨씬 뒤에 태어난 호머는 프티오티스 사람인 아킬레스를 따르는 자들—사실 이들이 첫 번째 헬레네스였다—만을 헬레네스로 불렀는데, 이들은 호머의 시에서 나오이인, 아르고스인, 아카이아인으로도 불렸다. 호머는 ‘바르바로이(이민족)’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헬레네스라는 용어가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서로의 방언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헬레네스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도시별로, 그 다음에는 모든 그리스인들이 사용하게 되었다.⁶⁾

6) 투키디데스, i.3.2-4

헬렌이 보이오티아 북부에 위치한 프티오티스(프티아)의 왕이 되고 백성을 ‘헬레네스’라고 칭했고, 그 때는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기원전 1521년이다. 헬렌이 왕으로 통치하던 프티오티스는 남부 테살리아 지역의 그리 크지 않은 땅이다.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기원전 1218-1209년) 즈음에도 헬레네스는 프티오티스 왕 아킬레스를 따르는 자들에게 국한되었다. 미케네 문명의 주 무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보이오티아, 아티카인데, 트로이 전쟁 즈음에 헬레네스가 거주했던 프티오티스는 미케네 문명권의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였다.

기원전 1120년경 도리스족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의 침입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우선 앞서 인용했던 스트라본⁷⁾은 펠롭스, 다나오스, 카드모스 같은 자들과 그 후손들이 주도했던 시대는 ‘그리스인의 시대 이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미케네 문명 시기는 그리스인들이 주도했던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디오도로스의 글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나는 옛 신화(mythologia)를 편찬하는 자들이 불리한 점이 많은 상황에서 글을 썼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첫째로 기록해야 할 사건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서술자들을 크게 당혹케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엄격성을 결여한 연대책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탐구를 독자들이 경멸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영웅들, 반신적(半神的) 존재들, 평범한 인간들—이들은 계보로 정리되어야 할 정도로 다양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낭송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혼란스러운 장애물은 매우 오래된 업적과 신화를 기록했던 자들이 그들 사이에서도 일치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후기 역사가들 중에서 명성이 높은 자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고대신화를 멀리하고 좀 더 최근의 사건들만 기록했다. 예를 들자면, 이소크라테스의 제자 키메의 에포로스는 통사(通史)를 쓸 적에 옛 신화(mythologia)의 이야기들은 지나쳐버렸고 헤라클레스 후손들의 귀국(he Herakleidōn kathodos) 후에 발생한 사건들의 기사로 역사(historia)를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에포로스와 동시대인들인 칼리스테네스와 테오

7) vii.7.1

폼포스도 옛 신화를 멀리하였다.⁸⁾

그런데 디오도로스가 언급하고 있는 에포로스(c. 400-330 BC), 칼리스테네스(c. 360-328 BC), 테오포로스(기원전 380년경에 출생)는 왜 통사를 서술할 때에 신화를 제외시킨 것일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여서, 그 연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이런 이유들로만 제외된 것일까? 통사라는 것은 민족주의 색채가 나타나기 마련이 서술방식이라 그 역사의 최초 부분은 강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세 명의 그리스 저자들은 왜 제외시킨 것일까? 앞서 인용했던 스트라본의 글에 따르면 ‘도리스족의 침입’ 이전에 그리스의 역사를 주도해나간 자들은 바르바로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화mythologia—위 인용문에 따르면, 신화란 도리스족의 침입 이전, 미케네 문명 시기의 역사다—를 통사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려는 시기에 살았던 세 명의 역사가들은 도리스족의 침입이라는 사건이야말로 그리스인이 주도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었다.

도리스족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침입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 헤로도토스가 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헬라스인들(=헬레네스)은 테우칼리온 왕 시절에 프티아(=프티오티스) 땅에 거주하였고, 그후 헬렌의 아들 도로스 시대에는 옷사 산과 올림포스 산 아래에 있는, 히스티아이아라고 불리는 땅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헬라스인들은 카드모스의 후손들(Καδμείοι)에 의해 히스티아이아로부터 축출된 후에는 마케도니아의 핀도스 산 부근에 정착하였다. 그곳으로부터 다시 드리오피아(주: ‘도리스’의 옛 이름)⁹⁾로 이주하였고, 마침내는 드리오피아로부터 펠로폰네소스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도리스족이라는 이름을 취하였다.¹⁰⁾

침입 이전에 도리스족이 이동하거나 거주하였던 곳은 미케네 문명권의 밖이거나 변두리 지역이다. 그리고 위 인용문의 “헬라스인들은... 도리

8) 디오도로스, iv.1.1-3

9) 헤로도토스(viii.31.1)에 따르면 드리오피아는 지명 도리스(Δωρίς)의 옛 명칭이다. 그리고 도리스족의 발상지에 관해, 스트라본 ix.4.10도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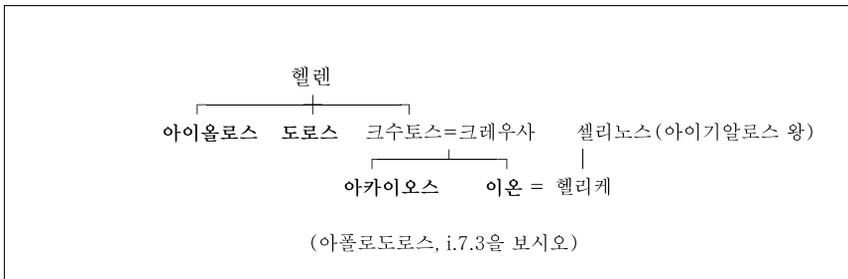
10) 헤로도토스, i.56.3, 이 글의 끝부분에 있는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스족이라는 이름을 취하였다”라는 대목에서 헤로도토스도 도리스족이 진정한 헬라스인(헬레네스)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도리스족의 침입이야말로 헬레네스가 주도하는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 도리스족이 가장 ‘헬레네스다운’ 부족이라면 도리스족과 아킬레스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캠브리지 고대사』에 “The End of Mycenaean Civilization and the Dark Age”라는 장을 집필한 데스버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전기에 도리스족은 각별히 ‘헬레네스적’이라고(헤로도토스, 1.56.2) 여겨졌고, 도리스에 있었던 그들의 선조들은 아킬레스가 통치했던 헬레네스인들과 관련되었다. 아킬레스와 에피로스 사이의 연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엿보인다. 아킬레스의 ‘도도나의 제우스에게 바치는 송가’, 에피로스에서 아스페투스(Aspetus)로서 아킬레스 숭배, 에피로스의 몰로시인들을 아킬레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가 방문한 사실(Hagias, Nostoi), 네오프톨레모스를 시조를 두고 있다는 몰리시 왕가의 주장.¹¹⁾

아킬레스가 헬레네스를 이끈 사람이라는 기록은 있어도 도리스족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료는 없다 하더라도, 데스버러는 아킬레스와 도리스족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11)V. R. D'A. Desborough, “Chapter XXXVI: The End of Mycenaean Civilization and the Dark Age (a) The Archaeological Background,”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2, Part 2 (1975), 688.

2. 이온과 아테네

헤시오도스 이래 그리스 저자들은 헬레네스가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테네인들이 이오니아인들의 대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청동기 시대 헬렌의 아들 크수토스, 크수토스의 아들 이온이 아테네인들과 관계를 맺은 유일한 사람들였고 이들의 후손이 아테네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헬렌의 아들 크수토스가 아테네와 연을 맺게 된 것은 이러하다. 크수토스(헬렌의 아들이다)가 아테네 왕 에렉테우스의 딸 크레우사와 결혼하여 이온과 아카이오스를 자식으로 둔다.¹²⁾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에렉테우스는 기원전 1400년경의 인물이었다.

에렉테우스 사후 왕위계승문제에 연루되어 아테네에서 쫓겨난 크수토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 해안에 있는 아이기알로스(Aegialus, 고전기의 아카이아 지방)에서 사망한다. 아카이오스는 고향인 테살리로 귀국하고, 이온은 아이기알로스의 왕이 되고 주민의 이름을 ‘아이기알로스의 이오니아인들’이라고 명명한다.¹³⁾ 아테네와 엘레우시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아테네인들은 이온을 초빙하여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파우사니아스, vii.1.5). 헤로도토스는 아테네인들이 이오니아인으로 불리게 된 때가 바로 이 때라고 기술하고 있다.

펠라스고이인들(Πελασγοί)이 오늘날 헬라스라고 불리는 곳을 통치하였을 때, 아테네인들은 펠라스고인들이었고 크라나오이(Κραναοί)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 케크롭스가 아테네 왕이었을 때, 그들은 케크로피다이(Κεκροπίδαι)라고 불리웠고, 이어서 에렉테우스가¹⁴⁾ 왕이 되었을 때 그

12) 디오도로스, 1.29.1에 따르면 그는 이집트인이다.

13) 파우사니아스, vii.1.4. 헤로도토스 7.94.1도 보시오. “이 이오니아인들(=이오니아에 살고 있는)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을 때는 오늘날 아카이아라고 불리는 곳에 거주하였고, 다나오스와 크수토스가 펠로폰네소스에 오기 전에는, 그리스인들이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아이기알레우스(Αίγιαλέυς)의 펠라스고이인들(Πελασγοί Αίγιαλέες)’이라고 불리웠다. 그들은 크수토스의 아들 이온의 이름을 따 이오네스인들이라고 명명되었다.”

14) 파로스 대리석 비문에 따르면, 에렉테우스의 재위년도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원전 1410/9년에 에렉테우스는 왕위에 있었다.

들은 이름을 바꾸어 아테네인들이 되었다. 그런데 크수토스의 아들 이온이 아테네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이오네스(=이오니아인들, Ἴωνες)라고 불리게 되었다.¹⁵⁾

그러나 이온은 아티카에서 전사하고(파우 i.38) 그곳에 묻힌다. 이온의 후손들은 아이아길로스의 이오니아인들의 왕이었지만 아테네와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

3. 펠롭스와 아카이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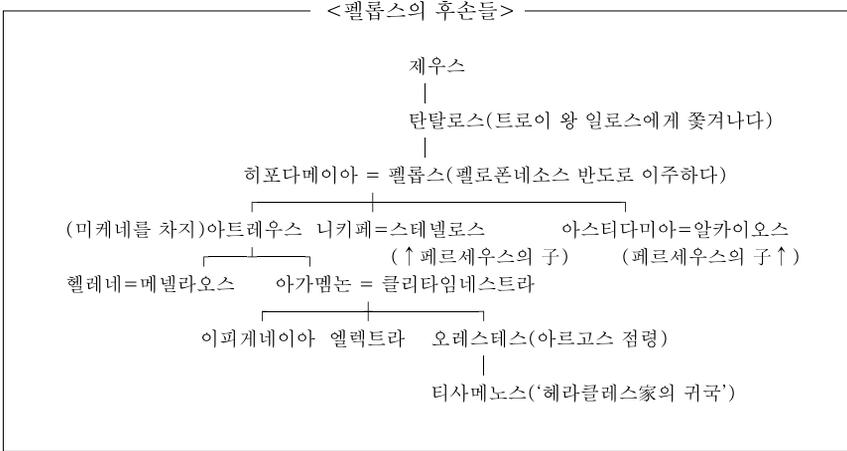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아카이아인들이 아카이오스의 아들 대부분은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파우사니아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선 나는 라케다이몬 및 아르고스의 주민이 도리스족의 복귀 이전에 아카이아인들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펠로폰네소스 사람들인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아카이오스의 아들들인 아르칸드로스와 아르키텔레스가 프티오티스로부터 아르고스로 와서는 다나오스의 사위들이 되어, 아르키텔레스는 아우토마테와 아르칸드로스는 스카이아와 결혼하였다. 그들이 아르고스에 정착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는 아르칸드로스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메타나스테스(Metanastes, 정착자라는 뜻)’로 지었다는 사실이다. 아카이오스의 아들들이 아르고스와 라케다이몬에서 권력을 잡자, 두 도시의 주민들은 아카이아인들로 불리게 되었다. 아카이아인이라는 이름은 공통적이었으나, 아르고스인들은 다나오이인이라는 별명을 지녔다.¹⁶⁾

그런데 파우사니아스는 아카이아인들의 또다른 이주 또는 침입을 기록하고 있다. 리디아(또는 프리기아)의 왕 펠롭스는 트로이 왕 일로스-주: ‘일리온(트로이의 또다른 명칭)’의 기원-의 공격을 받아 시필로스 산 부근에서 쫓겨나(파우사니아스, ii.22.3)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피사로 이주하여 왕국을 키워나간다(파우사니아스, ii.5.7). 펠롭스는 미케네 왕 아가멤논의 할아버지다. 『일리아드』(i.90)에 아가멤논을 “이제 아카이아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주장하는 아가멤논”이라는 기록이 있으니, 펠롭스는 아카이아족 왕가의 시조인 셈이다.

15) 헤로도토스, viii.44.2.

16) 파우사니아스, vii.1.6-7



히타이트 문서에는 ‘아키야와(Ahhiyawa)’라는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자리 잡고 늘 히타이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 1924년 에밀 포러(E. Forrer) 이래 적지 않은 학자들이 아키야와를 ‘아카이아인’으로 보아왔다. 마틴 버넬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원전 1430년의 어느 펜가 히타이트 왕 투달리야스 2세가 아수와라는 북서 아나톨리아에 있었던 국가들의 동맹을 패배시켰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다. 이 직후에 아키야와 Ahhiyawa라는 이름의 첫 나타남과 펠롭스의 아시아와의 연계를 고려하면, 흩어진 아수와 동맹의 요소가 결집되어 아키야와로 통합되었다는 주장은 개연성을 지닌다. 연구가설로서 아키야와를 히타이트 왕의 지배권 너머에 있는 서부 아나톨리아와 에게해권 주민의 범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그런데 상당히 일찍부터 아키야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 지역의 사람을 뜻했던 것으로 보인다. 펠롭스 가문의 힘이 그리스에 점차로 퍼졌으나 결코 전체 영토를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그리스 전승은 아주 명백하다. 이처럼 아키야와는 히타이트인에게는 ‘그리스인’을 의미했지만, 그리스에서 ‘아카이아인’은 히타이트의 변경 출신으로 헬레네스화 된 서부 아나톨리아 사람만을 의미했고 이들이 남부 그리스를 침입하였다.¹⁷⁾

17) Martin Bernal, *Black Athena II*, 455.

버넬은 펠롭스가 이끄는 아카이아족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의 침입을 히타이트 기록에 나오는 아키야와에 연관하여 기원전 15세기 후반으로 잡고 있다.

그리스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펠롭스는 언제 사람일까? 파우사니아스(v.13.2)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펠롭스의 증손자인데(파우사니아스, v.13.2), 헤라클레스의 친할머니 아스티다미아는 펠롭스의 딸이다(아폴로도로스, ii.4.5). 우선 헤라클레스가 언제 사람인지 알아보아야겠다. 『파로스 연대기』에는 18번째 사건으로 헤라클레스에 관해 한 줄 기록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년 전, 아테네에서 아이게우스가 왕이었을 때, 헤라클레스는...

안타깝게도 연대가 기록된 부분을 읽을 수 없다. 15-17번째 부분도 연대를 읽을 수 없다. 그러나 19번째 사건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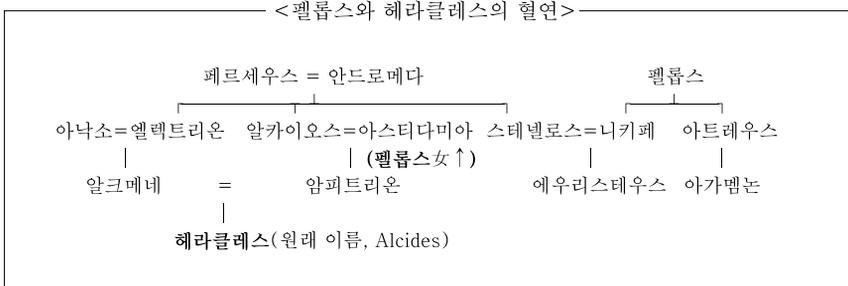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031년 전, 아이게우스가 아테네의 왕이었을 때, 아테네에는 식량이 부족하였고 신의 조언을 구하는 아테네인들에게 아폴론은 미노스가 내놓은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31년 전이라면” 기원전 1295/4년이다. 헤라클레스는 트로이를 공략한 적이 있었다. 아가멤논이 프리아모스 왕이 다스리는 트로이를 쳤다면, 헤라클레스는 한 세대 전에 라오메돈(프리아모스의 아버지)이 다스리는 트로이를 쳤다.¹⁸⁾ 파로스 비문에 따르면, 아가멤논의 트로이 원정이 1218-1209 BC에 행해졌으니, 헤라클레스가 트로이를 원정하였을 때는 1250년 경이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스는 1300-1250년에 활동을 한 인물이다. 펠롭스가 헤라클레스의 증조부이니 펠롭스는 대략 기원전 1400년경의 인물로 보인다.¹⁹⁾ 펠롭스를 기원전 1430년 직후의 인물로 본 버넬의 추론은 타당성이 있다. 그리스 측 사료와 히타이트 측 사료를 근거로 할 때, 아카이아족(또는 아키야와)이 기원전 1400년경을 전

18) 아폴로도로스, 2.6.4; 파우사니아스, 8.36.6를 보시오. 그리고 디오도로스, 1.24.2도 참조하십시오.

19) 아폴로도로스(iii.5.5)에 따르면, 테베에서 추방된 라이오스(오이디푸스 왕의 아버지)를 펠롭스가 받아들였다.

후하여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이주하였던 것 같다.



4. 아테네인과 이오니아인

이온으로부터 3백년쯤이 지나 기원전 1120년경 도리스족의 침입 때, 도리스족에게 밀린 아르고스와 스파르타의 아카이아인들-이들의 왕은 펠롭스의 후손들이다-은 펠로폰네소스 북쪽 해안지역에 위치한 아이기알로스의 이오니아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땅에 받아들여줄 것을 간청한다. 이오니아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아카이아인들은 싸움을 걸었고, 아카이아인들의 왕 티사메노스(아가멤논의 손자이다)는 전사하였으나 아카이아인들은 승리를 거두었다. 쫓겨난 이오니아인들은 아티카로 피신하였고 아테네 왕 멜란토스는 이들을 받아들인다. 그 후 코드르스의 두 아들인 메돈과 네일레우스가 아테네의 왕위를 놓고 경쟁하다가 메돈이 왕이 된다.²⁰⁾ 기원전 1077년경²¹⁾ 네일레우스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늘날 터키 서부 해안(이후 ‘이오니아’로 불리게 된다)으로 식민 단을 이끌고 떠난다. 파우사니아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네일레우스와 그밖의 코드르스의 아들들은 식민지를 찾아 떠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아테네인들을 대동하였다. 그러나 이 식민단의 대다수는 이오니아인들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지도자와 무리가 서로 다른 혈연으로 구성되어 그리스로부터 외지로 향한 세 번째 원정이었다(ἐκ δὲ τῆς

20) 이번 절의 이곳까지의 이야기는 파우사니아스, vii.2.1-9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1) 『과로스 연대기』에 따른 연도이다. “지금으로부터 [8]13년 전, 아테네 왕 메[네스테우스] [13년에], 네일레우스가 밀레토스와 [이오니아]의 그 밖의 지역들인 에페소스, 에리트레, 클라조메네, 프[리]에네, 리베도스, 테오스, 콜로폰, 미우스, [포카이아], 사모스, [키오스]를 식민화하였다.”

‘Ἑλλάδος τρίτος δὴ οτος στόλος ὑπὸ βασιλευσιν ἄλλοίοις χλοῖς τε ἄλλοίοις ἐστάλησαν)... 코드로스의 아들들이 이오니아인들의 지도자로 임명되었지만 그들은 이오니아인들과 관련이 없었다. 그들은 코드로스와 멜란토스를 통해서는 필로스의 메세니아인들이었고, 모계로는 아테네인들이었다.²²⁾

파우사니아스는 청동기 시대에 아테네인과 이오니아인들은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혈연 집단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크수토스와 이온을 제외한다면 헬렌의 혈통이 아테네에서 이렇다 할 권력을 잡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오니아인들을 아테네 왕가 사람들이 이끌고 터키 서부 해안에 이르렀으니, 후에 아테네와 이오니아인은 동일한 혈연집단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IV. 맺음말

고대 그리스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미케네 문명 시기 그리스 땅에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정착하였고 도리스족의 침입을 겪은 후에도 헬렌의 후손들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만이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는 그리스인들에게 헬레네스의 정체성을 확립할 절실한 필요를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없다. 헤라클레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도리스족의 침입’ 또는 ‘헤라클레스 왕가의 복귀’ 때에 헤라클레스 후손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나누어 갖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파르타이다. 이후 두 가문에서 두 명의 왕이 공동 통치하였고 스파르타가 망하는 기원전 2세기까지 이 전통은 중단 없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헬레네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기원전 800년 경의 두 시인인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같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헤라클레스를, 그리스의 역사에서 절대로 제쳐버릴 수 없는 인물을 어떻게 헬레네스의 테두리 속으로 끌어들이었을까? 그 방법은 헤라클레스를 헬레네스의 주신(主神) 제우스의 아들로 삼는 것이다.

내가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였소. 그녀는 위대한 제우스의 품에서 몸을 섞어, 대담무쌍하고 사자처럼 용감한 헤라클레

22) 파우사니아스, vii.2.1-3

스를 낳았소.²³⁾

셋째는, 그녀(=에키드나)는 파멸을 피하는 레르나의 히드라를 낳으니, 흰 팔의 여신 헤라가 힘센 헤라클레스에 대한 물릴 줄 모르는 원한을 품고 그것을 길렀다. 하나 제우스의 아들로 암피트리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헤라클레스가 아레스에게 사랑받는 이올라오스와 힘을 모아 군대를 이끄는 아테네 여신의 조언에 따라 그것을 무자비한 청동으로 죽였다.²⁴⁾

두 시인 모두 헤라클레스의 어머니 알크메네의 남편을 인간 암피트리온이라고 기술하고는 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두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를 암피트리온으로 보고 있지, 제우스일 가능성은 생각해보고 있지도 않지만 말이다.

청동기 시대에 아테네인과 이오니아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거의 없었듯이, 헬레네스를 이루는 4부족에 속하는 도리스족과 이오니아족의 경우에도 청동기 시대에 접촉하였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 도로스는 헬렌의 아들이고 이온은 헬렌의 손자라는 것을 제외하면, 청동기 시대 도리스족과 이오니아족 사이의 접촉은 사료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431-404 BC)에 관한 존 앨티의 흥미로운 논문이 있다.²⁵⁾ 1956년 에두아르 윌이 고전기 그리스의 두 대표적인 인종(Θvη)인 도리스족과 이오니아족을 연구한 후 그리스인들 사이에 진정한 인종적 대립감(ethnic feeling)은 없었다는 그의 주장은²⁶⁾ 이후 하나의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앨티는 기원전 6, 5세기의 증거를 검토해보면 각 폴리스의 실제 행동에 Θvος(인종)에 대한 충성과 국익이라는 두 요소가 뒤섞여 있다 하더라도 인종적 대립감이 상당히 일관성을 지닌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으면서,²⁷⁾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와

23)호메로스, 『오디세이아』, xi.266 ff, 천병희 역, 『오뒤세이아』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년 재판).

24)헤시오도스, 『신통기』, 313 이하. 천병희 역, 『신통기』 (서울: 한길사, 2004). 논자가 원 번역을 약간 변경하였다.

25)John Alty, "Dorians and Ionian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02(1982), 1-14.

26)E. Will, *Doriens et Ioniens* (Strasbourg, 1956). Alty, p. 1을 보시오.

27)Alty, "Dorians and Ionians," 14.

아테네 사이의 패권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리스 족과 이오니아족 사이의 인종적 대립감을 고려해야만 그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²⁸⁾

청동기 시대 그리스는 이집트, 페니키아로부터 온 이주자들의 정착지였고, 그리스의 네 부족들도 혈연적인 유대감을 보여주는 경우보다는 대립감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같은 저자들이 헬레네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놓으려고 하였지만 실제 역사(歷史)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그 개념은 그리스 저자들에 의해서도 논란이 되었다. 기원전 1세기 역사가 스트라본(64/3 BC~ 24 AD)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평가들은 “헬라스”, “헬레네스”, “판헬레네스” 같은 용어들에 대해 지금도 논쟁을 벌인다(περι δὲ τῆς Ἑλλάδος καὶ Ἑλλήνων καὶ Πανελλήνων ἀντιλέγεται).²⁹⁾

‘헬레네스’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혈연개념으로서 그리 응집력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강대 사학과, lovesocrates@daum.net

28) Alty, “Dorians and Ionians,” 3-7.

29) 스트라본, viii.6.6.



그림 : 헤로도토스(i.56.3)가 언급한 도리스족의 정착지에 밀줄 그어 놓았다. 다음의 번호 순서대로 도리스족이 정착하였다. ①히스타이아(올림포스 산과 옷사 산 기슭, 도로스 시대) ②핀도스 산(카드모스 후손들에 쫓겨) ③도리스 ④펠로폰네소스(도리스족의 침입 때). 지도출처: Cambridge Ancient History (1975), vol ii, part ii, 682.